

인터뷰

조계종 새 원로의장 탄성스님

“뉘우침 있어야 화합 빨라져”

“원로의회의 사실상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조계종 새 원로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탄성스님(공림사 조실)은 7일 기자회견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종단이 어려울 때 수습하기 위해 나서는 것 뿐이지요. 평소 때는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이 다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종단화합을 위한 방안은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저쪽(정화회의)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관용을 베풀고 싶지만, 지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자비는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말 빈자에 대한 구제도 종정님과 총무원장, 종회의장 등이 합의해서 중헌을 고치면 가능하다. 법인들이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총무원 장관을 끌어놓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 같다.

▲바른 승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가사문의 뜻은 깨우침에 있다.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출가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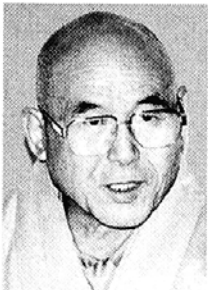
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이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산문 밖으로 나오셨는데...

—종단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수행자다. 산문 밖을 나갈 때나 지금이나 수행한다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자기수행에 전념하길 부탁한다. 나의 은사인 금오스님은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수행이라고 하셨다.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희망-나눔-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확정

5월 자비실천-문화행사 등 잇달아 연등축제 서울시문화제로 첫행사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고산, 집행위원장 원택)는 7일 연등축제와 각종 문화행사, 자비실천 등 주요 행사 일정과 봉축행사의 방향을 밝혔다. <대표 참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마스하게’란 표어 아래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봉축기간이지만, 이에 앞서 22일 경기도 김포 예기봉 봉축담에 불을 밝혀 북녘에도 자비의 빛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 봉축행사는 희망과 나눔을 구현하고 참회 정진하는 불교의 본 모습을 널리 알린다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된다. IMF관리체제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얼룩진 불교 이미지를 씻어내고 바르게 정진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봉축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5월 16일 동대문운동장-조계사 구간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는 올 행사의 하이라이트. 올해 처음 서울시 지역특성문화제로 지정

됨에 따라 불자들이 행사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마당으로 꾸며진다.

이에따라 올해 연등축제는 각종 전통 등에 중점을 뒀 불거리를 중시해 재공한다는 방침이다. 등이 갖는 지혜와 소망의 의미를 강조해 부처님오신날이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나누는 날로 맞이하는 축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간대 예년의 오후 2시부터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연등축제에서는 또 경북 안동과 마산시 진동에만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불꽃놀이인 줄 불꽃놀이를 재현해 불교문화와 민속의 결합도 시도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22일 오전10시 조계사를 비롯 전국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법요식에서는 남북불교도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동발원문이 발표되며,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도 이날 묘향산 보현사 등 주요사찰에서 법요식을 봉행한다.



○지난 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이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봉축위원회가 조직돼 부처님오신날 봉축에 분주하다. 부산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성덕) 광주·전남봉축위(위원장 종걸) 전북봉축위(위원장 도영) 보은봉축위(위원장 해공) 영주봉축위(위원장 정인환) 천안봉축위(위원장 목조) 군산봉축위(위원장 재곤) 포천봉축위도 4월부터 5월 22일까지 열린 음악회, 차량 연주달아주기,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펼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고산총무원장 취임 100일

종단안정 기초다지기

19일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취임 1백일을 맞는다. 1월 10일 이후 조계종의 1백일은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종단의 안정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라는 평가다.

고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한국사회와 세계사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로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새 출발의 바탕을 초발심 회복과 수행, 정진의 승가 전문회 회복에 두었다.

변화의 첫 가시화는 종단협에서 나타났다. 종단협의 회가 고산스님을 맞으며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말끔히 씻어냈다. 6개 종교 모임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을 맡으며 불교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였음도 주목된다.

종단협 운영 활기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총무원의 고무신은 조용한 변화의 상징이다. 승중쇄신은 제도과 거창한 구호에 앞서 소임자의 낮은 자세와 승려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향교 교육기간의 연장을 언급한 것도 승중을 쇠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고산스님은 스스로가 먼저 행동함으로써 이끄는 스타일”이라며 “출타하지 않으면 공양은 반드시 청사식당을 이용하며, 새벽예불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고산스님의 가풍을 전했다.

종양승가대 특위 구성에서도 보듯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비껴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주위에서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정면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종단사태로 갈라진 승가를 결합하는 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성운 기자

◇ 봉축주요행사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It lists various Buddhist events such as the 1st Jocheong In-law Meeting, Buddha's Birthday Festival, and various regional activities.

목어

선암사

빈집에 도둑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도 보물이 가득한 빈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둑이 30여년간 선암사 탕화를 훔 감고치에서 훔감 빼먹듯 50여점이나 훔쳐갔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불자들은 물론 비불자들도 어이없어 하고 있다. 주인없는 집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일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스님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선암사는 소유권 분쟁사찰이라면 서로. 당연히 거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해묵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

못한 사찰이 다. 선암사의 법적 소유자는 조계종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을 짚어 온 태고종은 그곳에 총림을 개설하고 강원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대립속에 선암사 재산권리는 순천시가 맡고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스님들이 살고 있어도 빈도처럼 허술할 수밖에.

선암사에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고찰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그런데 너무 퇴락해서 얼마나 жал지 걱정이입니다.”

그 퇴락이 당우의 외면만 아니라 속살까지 파고들어 성보인 탕화가 무

더기로 증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어이없는 일은 잘못을 서로 떠넘기거나 ‘모를 일’이라는 책임 회피다.

경찰에 의하면 “태고종측이 자신들의 문화재 관리능력에 흠집을 내기 위해 조계종측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측은 그 말에 어차구니 없어하고 있다. 관리자 순천시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선암사에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모르쇠’로 통할 일이 아니다.

태고종측은 이런 말도 하고 있다.

“태고종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성보를 잘못 모신 반성이나 잃어버린 아픔, 관리소홀 또는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은 모두 뒤전으로 돌리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빼어난 책임의식 속에 남은 성보지키기와 사라진 탕화 찾기 대책을 함께 세우고, 이 기회에 소유권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야겠다.

다름은 파벌의 원인이다. 선암사 탕화는 특정 종단을 떠나 천만 불자의 성보이며 국민의 보물이다.

金河堂 光德 大禪師 49齋 奉行案内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언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범어사 입선 | 1951년 부산 범어사 청량당 장전 | 1955년 부산 범어사 통산 선사로 은사로 복도 | 1956년 비구계 수계, 대외처 함법, 초대회장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 1963년 대학생활공헌회 초대 지도부이사 | 1965년~1967년 범어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덕학원 이사 |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총회 부의장 겸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 1973년 재단법인 대덕학원 이사 | 1974년~1979년 재단법인 대덕학원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 1975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79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신학 대본산 범어사 교강제단 보살계 전계대학사 | 1992년~1999년 도서출판 한광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원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사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답까지, 삶과 죽음의 의미, 불교의 본질, 불교의 법칙, 메타의 없는 끝까지, 만법과 깨닫지 않는 자, 신관역진, 육조단결, 부유승종정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화오전 등 다수 | 한불가 - 성직 국익교과서 보현행원승 부유승종승 미하반야의 노래, 연꽃피는 날, 찬란한 이 아침, 초피일 승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남의 습관, 깊은 대담 위 대담, 혼자 있을 때, 보디스비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다, 변형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저서

스님, 스님은 그대로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돌아오소서

르스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누시고 지난 2월 27일 열반의 세계에 드신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르스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 때에는 르스님의 덕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랐으나 르스님 가신 뒤 애도하는 추모인파로 르스님의 크나큰 위신력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건강도 돌보지 않고서도 전념에 임하신 르스님,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념으로 깨달음을 이루려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았던 영결식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전념으로 보리(菩提) 이루려는 르스님의 부촉을 계승하여 윗 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완성임을 깨닫고 불교 발전에 일로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르스님 가신 지 49일 되는 오는 4월 16일 사부대중을 모시고 사십구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 범 어 : 해암 (문도대표) · 일 시 : 1999년 4월 16일 (음 3월 1일) 오전 10시 ·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 연락처 : 02-413-6060 ~ 2

禪刹大本山 梵魚寺門徒合掌